

## 일본, 아시아 광역인프라 개발계획 발표

동아시아정상회의(EAS)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 광역 인프라 개발계획인 ‘아시아종합개발계획’을 확정, 발표함에 따라 향후 일본 기업의 아시아 신흥국 진출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.

- 일본정부는 3월말 2020년을 목표로 한 ASEAN-중국-인도에서의 광역 인프라 정비계획을 담은 아시아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함.
  - 일본 민주당 정권은 2009년 말 발표한 신성장전략 기본방침을 통해 2020년까지 APEC 자유무역지대(FTAAP)를 구축하고 아시아 소득을 배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음.
  - 일본 정부(경제산업성)는 2008년 6월 동아시아ASEAN경제연구센터(ERIA)\*를 설립하였고, 아시아종합개발계획안은 ERIA와 ASEAN 사무국, ADB 3개 기관이 작년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의 요청에 의거하여 수립한 것임.
- \* ERIA(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;자카르타 소재)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연구기관으로서 동아시아 16개국(ASEAN+한·중·일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)이 참여
- 아시아종합개발계획안에 따르면, ASEAN과 중국, 인도 일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을 4개 개발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우선 육·

해·공의 교통망과 물류망부터 정비한다는 계획임.

- 향후에는 발전소, 공업단지, 통신망, 자원·에너지 개발 분야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

- 이번 아시아종합개발계획안은 일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메콩종합개발, BIMP 광역개발, 메콩-인도 산업대동맥, IMT 성장삼각지대개발 계획을 망라한 것이고, 델리-뭍바이 산업대동맥 개발계획(Delhi-Mumbai Industrial Corridor Project)\*은 별도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.

\* 개발 대상 지역이 인도 영토의 16%(약 51만 km<sup>2</sup>)를 차지하고 공업·물류 단지에 약 900억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서,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80%가 이 지역에 밀집

<그림 1> 아시아종합개발계획상의 4대 광역개발권



주: 1) BIMP는 브루나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, IMT는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및 태국을 의미함.

2) 이번 아시아종합개발계획안에서 델리-뭍바이 산업대동맥 프로젝트는 제외됨.

자료: 2009 통상백서 및 일본경제신문 2010.3.30일자

-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전체 2,000억 달러 중 1,100억~1,300억 달러는 일본, 중국 등 역내 주요국과 ADB 등이 각출하고, 나머지는 현지 정부와 외자를 포함한 민간기업간의 민관파트너십 형태로 조달한다는 방침임.
- 위 계획안은 5월 ASEAN 사무국장의 방일 시 공식 발표와 7월 동아시아 경제각료급 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,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임.

#### <참고자료>

經濟通産省, 通商白書 2009, 2009.9.  
日本經濟新聞, 2010. 3. 30/4.21일자